

주역의 ‘사상’과 사상의학의 ‘사상’의 연관성에 관한 고찰

이성환* · 김기현**

An Inquiry into the Meaning of “Sasang” in the I Ching and Its Relationship to the Sasang Medicine

Lee Sung-hwan* · Kim Ki-hyon**

* Kwang 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wang Ju, Korea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South Baylo University, Los Angeles, USA

**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Emperor’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LosAngeles, USA

Purpose :

Many believe that the Sasang mentioned in the I Ching and the Sasang of Sasang Medicine (as expounded by Dr. Lee Je-ma in the book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Oriental Medicine) refer to different concepts. This is untrue. In order to understand the thought patterns of Dr. Lee Je-ma and his book,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concepts of the I Ching. The I Ching was the most respected text in Dr. Lee Je-ma time, and served as the foundation upon which his medicine stoo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asang in the I Ching and how it applies to the Sasang Medicine.

Method :

The authors first defined the term Sasang according to the theory of I Ching. It was th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ories of modern science. Inferences were made as to how Sasang corresponds to the terminologies and concepts of modern science. The characteristics of Sasang interpreted through modern science were then applied to the physiology, pathology and pharmacology of Sasang Medicine.

Results and Conclusion :

1. The Sasang Theory of the I Ching organizes seemingly random and isolated natural phenomena into four distinct groups according to various attributes.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representing each of these four categories are known as Sasang.

*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 South Baylo 한의과대학 원론교실

** 황제 한의과대학 원론교실

교신저자 : 김기현 주소) 16545 Ventura Blvd., Suite 24, Encino, CA 91436, U.S.A. Tel) (818)501-8227 E-mail) kihyonkim@prodigy.net

2. The Sasang Theory of I Ching has a strong correlation to the Theory of Relativity and the Theory of Complementarity, as well as the Digital and Fractal Theories.
3. By applying the Sasang Theory to various fields, the seemingly unrelated principles of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medicine can be seen as parts of a whole.
4. Sasang Medicine categorizes human morphology, physiology, pathology and pharmacology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defined by the Sasang Theory of the I Ching.
5. Grouping new discoveries of modern physics, chemistry, biology and medicine according to the Sasang Theory will bring to light the intricacies of the Sasang Theory while facilitating the incorporation of modern science into Sasang Medicine.

Key words : I Ching, Sasang Theory, Digital Theory, Fractal Theory

초 록

1. 연구 배경 :

사상의학의 '사상'은 주역의 '사상'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주역이 난해하다면 사상의학의 원전인 『동의수세보원』도 난해하기 때문에 주역의 사상과 사상의학의 사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다. 따라서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이제마선생의 생각과 『동의수세보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기초학문인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공부를 바탕으로 사상의 의미를 이해하여 그것이 사상의학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

먼저 "사상"이라는 개념을 주역의 이론으로 밝혔다. 그리고 현대과학에 사상을 비교하여 상호 연관성을 유추하였다. 이렇게 이해된 '사상'이 사상의학의 생리, 병리, 약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3. 연구 결과와 결론 :

1. 주역의 '사상'은 우주, 인체, 윤리 등의 독립된 개체를 전체로 놓고 그 대표되는 특성의 차이에 따라 4가지 상으로 나뉘었다.
2. 주역의 사상은 현대과학의 상대성이론, 상보성이론, Digital이론, Fractal이론에 등에 해당된다.
3. 현대과학의 각 분야인 물리, 화학, 생물, 의학은 각기 다른 분야로서 일관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주역의 사상을 등장시킴으로서 현대과학의 각 분야들의 전체적인 상호 연관관계를 찾게 됨을 알 수 있다.
4. 사상의학은 인간의 체질, 생리, 병리, 약리 작용들을 주역의 사상이 갖고있는 4가지 특성에 따라서 4가지 group으로 구분하였다.
5. 사상의 각 특성을 알기 위해서 현대 물리, 화학, 생물, 의학의 새로운 사실들을 사상에 따라 group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현대과학을 사상의학에 도입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고 사상의학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심 단어 : 주역, 사상이론, Digital 이론, Fractal 이론

I. 緒論

한의학은 의학의 기초가 수학, 물리, 화학이 아니라 음양, 사상, 오행이라서 수학, 물리, 화학만을 배워온 한의학 학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음양오행론을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배우더라도 음양오행론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음양오행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한의사들이 이해하는 한의학은 100년 전에 음양오행론만을 실생활에 적용하던 한의사들이 이해하던 한의학과 거리가 멀다.

특히 사상의학은 종래 한의학의 오행론적 이론체계를 가진 한의학을 사상적 이론체계로 해석한 한의학이라 오행적 이론체계에 익숙해 있던 중국이나 미국의 한의사들에게는 더욱 큰 혼란을 준다.

사상의학은 역사도 짧고 연구서적도 부족하여 사상의학과 관련되는 서적은 한 권이 아쉽다. 사상은 역경의 용어이니 역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해된 사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사상의학을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현대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역경은 이제마 선생 당시에는 기초과학 서적에 해당하니 사상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경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사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사상의 이론체계를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면 이제마 선생처럼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이제마 선생 당시의 학자들의 관심사는 성리학이기 때문에, 선생은 성리학에 사상의 이론체계를 적용시키면서 사상의학의 타당함을 주장했다. 지금은 우리의 관심사가 성리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의학을 『동의수세보원』처럼 성리학의 용어로 설명하면 더욱 이해가 힘들다. 수학, 물리, 화학에 익숙한 현대의 한의학자들에게는 사상체계의 과학적 해석이 사상의학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고 그 방법이 이제마 선생 당시에는 몰랐던, 현대의학이 발견한 중요한 의학적 사실들을 사상의학에 편입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용기를 내어 사상체계의 과학적 해석을 시도해본다.

II. 本論

1. 역경의 분화법칙 속의 사상

『易經』에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 하였다.^{1),2)} 그후에 나온 역경의 주해서들은 이것을 <그림1.> 같이 도해한다. 그리고 이제마 선생은 역경의 용어들을 ()속과 같이 정의 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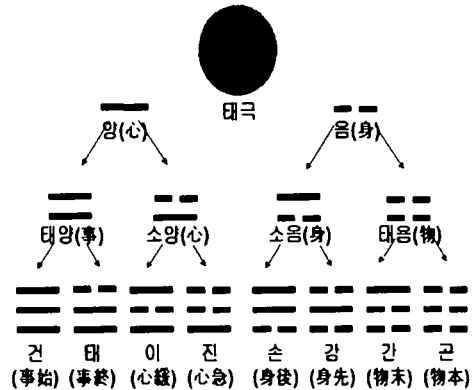


그림 1.

사상의 패들은 음효와 양효가 상하의 위치에 각기 다르게 배열되어 각 사상의 성질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음의 속성과 양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사상의 패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각 사상의 서로 다른 성질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상은 음양에서 다시 한번 분화한 것을 일컫는다. 음속에 음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있는데 음적인 면은 태음이 되고 양적인 면은 소음이 된다. 양속에 음적인 면은 소양이 되고 양적인 면은 태양이 된다.

이 도해는 족보처럼 수직적으로는 사상 중에 한 가지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고 그것이 어느 팔괘를 생성하는가와 수평적으로 다른 사상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이 도해는 어느 일 물의 분화 패턴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 일 물은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진 구성성분들의 집합체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태극은 음과 양이라는 구성성분의 집합체이기도 하고 사상의 집합체이기도 하고 팔괘의 집합체이기도하다. 인간은 소우주이며 태극에 해당한다. 인간은 한 개의 세포(수

정란에서 수없이 분화된 서로 다른 세포들의 집합인데 이 도해는 이것을 아주 쉽게 나타내고 있다. 수정란 한 개가 분화하여 2개로 분화하고 다시 4개로 분화하고 8개, 16개, 32개, 64개……로 분화하여 인체의 수많은 세포가 되고 그것이 모인 것이 한 인간이다. 이러한 분화는 한 방향의 분화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집합이 될 수도 있다.

64패 중에 성질이 비슷하나 약간 차이가 있는 패가 들씩 모여 32패가 되고 32패 중에 비슷한 것 두 패가 하나로 되어 16패가 되고 이렇게 8패, 사상, 음양, 태극이 되는 것처럼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근육, 뼈, 혈관, 혈액, 신경 등의 조직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모여 오장 등의 기관이 되고 이 기관들이 모여 정신과 육체를 만들고 이들이 한 인간이 되는 양방향의 분화와 집합을 모두 도해하고 있다.

이 도해에서는 음 속에 음과 양이 들어 있고 양 속에도 음과 양이 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태극에 붉은 색 영역과 푸른 색 영역이 있는 것은 태극이라는 하나가 음과 양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음에서 음을 보다 많이 갖고 있는 태음과 음을 보다 적게 갖고 있는 소음으로 나누는 것은 음 속에 음양이 있다는 표현이 된다. 음양은 상대적인 표현 방법이므로 절대적인 양이나 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이 보다 적은 쪽이 양이 되며 양이 보다 적은 쪽이 음이 된다.

태극, 음양, 사상, 팔괘를 기본적인 수학으로 표시한다면 1/2의 음과 1/2의 양으로 구성된 것이 태극이고 전체의 1/4의 음과 3/4의 양으로 구성된 것이 양이고 1/4의 양과 3/4의 음으로 구성된 것이 음이다. 1/8의 양과 7/8의 음으로 구성된 것이 태음, 3/8의 양과 5/8의 음으로 구성된 것이 소음, 3/8의 음과 5/8의 양으로 구성된 것이 소양, 1/8의 음과 7/8의 양으로 구성된 것이 태양이라 할 수 있다.

생체에서는 이 도해에서 보여주는 이 패턴이 아주 잘 적용된다. 수정란의 분화가 거듭되면 수많은 세포가 되는데 이 개개의 세포는 음적인 성질과 양적인 성질을 구비하게 된다. 음양의 분포가 비슷한 세포끼리는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조직을 이룬다. 예를 들어 음과 양의 비율이 889756 : 110244인 세포는 889757 : 110243인 세포나 889758 : 110242인 세포들 처럼 음양의 편차가 비슷한 것끼리 어울려 하

나의 조직을 이룬다. 다시 인체를 구성하는 전체의 조직들 중에 음양의 편차가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 하나의 장부를 이룬다.

이 도해에서 각 분화단계에서 음을 모두 합한 량과 양을 모두 합한 량의 비율은 음과 양이 50 : 50이 된다.

이 도해는 우주 생성의 패턴이고 모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물이나 작용을 인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람이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물의 성질과 다른 사물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성질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스무고개처럼 예, 아니오 질문을 거듭해 나가야한다. 이 도해에 의하면 두 번 반복되는 질문에 사상중의 한가지가 결정되고 세 번 반복되는 질문에 팔괘 중에 한가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6번 반복하는 질문에 64패의 한가지를 다른 64패와 구분해낼 수가 있다. 이러한 인식방법은 컴퓨터가 서로 다른 사물이나 명령을 인식하는 방법과 같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작용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서로 다른 성질은 음인가 양인가의 반복되는 질문에 의해서 그 구분이 명확해진다. 큰 슈퍼마켓 안에 있는 수많은 물건 하나 하나가 예, 아니오가 중복된 바와 틈새 공간들의 집합인 바코드로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과 같다.

이 도해는 일종의 분류방법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이 분류 패턴이고 모델이므로 이 방법에 의해 어떤 공통성을 갖는 그룹의 구성원들을 분류할 수 있다. 족보에서 아버지 형제들이 둘이라면 그들의 음양적 성질에 의해 음양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나의 형제들이 4이라면 그들의 음양적 성질에 의해서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 형제들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8명이라면 그들의 음양적 성질에 의하여 8패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 방식으로 분류한 후에 그 해당하는 사물에 음양, 사상, 팔괘의 용어를 써서 이름을 붙이면 번호를 붙이거나 서로 연관관계를 알 수 없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보다 이름만 봐도 그들의 성질을 연상하기 좋다.

또한 지도에서 경도와 위도를 말하는 것처럼 이 도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어 다른 사물들과 수직, 수평적 연관관계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마 선생이 의학을 설명하는데 있어 역경의 용어인 사상을 사용한 이유일 것이다. 「東武自註」에서는 心을 태극이라 말했다⁴⁾ 『格致彙·反誠箴』에서는 편명을 팔괘의 이름으로 했다.⁵⁾

방위를 분류할 때 동서나 남북,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보다 세분해서 동서남북, 4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더 세분하여 8방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더 세분하여 16, 32, 64…… 끝없이 분류할 수 있다.

하루의 시간을 오전과 오후 둘로 분류할 수 있다. 더 세분하여 새벽, 정오, 황혼, 자정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더욱 세분하여 8, 16, 32, 64……로 나눌 수 있다.

일년의 기후를 더울 때, 추울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더 세분하여 8, 16, 32, 64……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할 때 중요한 것은 4 이상으로 나누어도 그 구성요소들을 음양적 성질을 달리하는 4개의 큰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방위 중에 4방을 언급할 때가 많고 더 나누어도 되는 계절 중에 사계절을 주로 언급하는 것은 넷으로 나누었을 때 그 서로의 차이점을 잘 알 수 있으면서도 전체의 연관관계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의 구별은 명확해지나 나누면 나눌수록 전체적 연관관계는 모호해지기 때문에 넷으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적당하다. 이제마 선생이 8괘의 이름을 따서 문장의 제목을 짓고 각 사상인의 表病과 裏病 8 가지 병증을 말하면서도 사람의 체질과 주위환경, 윤리, 생리, 병리, 약리를 넷으로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사상서로의 구분과 전체적인 연관관계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상의 의미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가지로 분류되고 그 성질의 차이점이 분명한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각 사상의 성질을 잘 알 수 있다.

기후는 寒, 熱, 溫, 涼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차이점에 우리는 익숙해 있다. 이것을 음양으로 나누어 보면 온열은 양이 되고 한량은 음이 된다. 이들을 다시 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양 중에 양인 열은 태양이 되고 양 중에 음인 온은 소양이 된다. 음 중

에 음인 한은 태음이 되고 음 중에 양인 량은 소음이 된다.

방위의 성질을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과 해가 가장 오랜 시간 비치는 남쪽은 양에 속하고 해가 지는 서쪽과 해가 가장 짧은 시간을 비치는 북쪽은 음에 속한다. 남쪽은 양 중에 양에 속하므로 태양, 동쪽은 양 중에 음에 속하므로 소양이고 서쪽은 음 중에 양에 속하므로 소음 북쪽은 음 중에 음에 속하므로 태음에 속한다. 같은 태양에 속하는 열과 남쪽, 같은 소양에 속하는 온과 동쪽, 같은 태음에 속하는 한과 북쪽, 같은 소음에 속하는 량과 서쪽은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 이것이 각 사상의 성질이다.

1) 물질과 에너지 양면의 대립관계로서의 사상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의 구성물질을 물질과 에너지 두가지 상태로 본다.⁶⁾ 에너지가 모여 물질로 되고 물질은 분해되어 에너지로 된다고 생각한다. 아인슈타인은 이 관계를 $E=mc^2$ 으로 방정식을 만들었다.

『中和集』⁷⁾에서는 “原其始也 一切萬有 未有不乎氣 推其終也 未不變於形 是知萬物 本一形氣也”라고 하여 萬物의 本이 一氣와 一形이라는 같은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또, “息者消之 消者息之 息者氣之聚 消者形之散 生育長養 爲之息 歸根復命 謂之消”라 하여 陰陽消息이 氣之聚와 形之散으로 현대 물리학의 견해와 같다. 이제마 선생은 우주에 해당하는 태극의 네 가지 구성성분인 사상을 事心身物이라 하였다.⁸⁾ 주관적인 소우주인 인간 구성성분을 心과 身, 인간과 구분되는 객관적인 우주의 구성성분을 事와 物로 구분하였는데 用(작용)에 해당하는 心과 事는 에너지에 해당하고 體(형체)에 해당하는 身과 物은 물질에 해당한다.

만물의 변화가 물질과 에너지 상태의 변화를 반복한다 할 때 물질은 에너지화 하는 중간 단계가 있고 에너지는 물질화 하는 중간 단계가 있다. 에너지화, 에너지, 물질화, 물질의 4 단계가 있다. 이 4 단계를 음양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에너지화와 에너지는 양에 속하고 물질화와 물질은 음에 속한다. 에너지는 보다 활동적인 상태로 태양에, 물질은 보다 靜적인 상태로 태음에, 에너지화는 소양에, 물

질화는 소음에 속한다. 물의 변화 상태도 <그림2.>와 같이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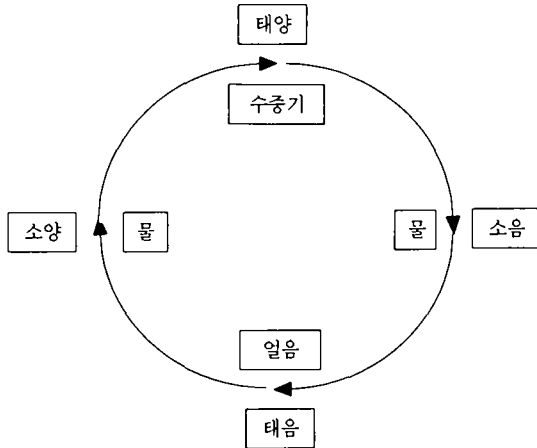


그림 2.

얼음은 태음에 속하고 수증기는 태양에 속하고 얼음이 녹아 수증기로 변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물은 소양, 수증기가 응집하여 얼음으로 변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물은 소음에 해당한다. 물에는 소양에 해당하는 물과 소음에 해당하는 물이 있는데 같은 물도 그 상태에 따라 성질이 달라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⁹⁾

2) 사상과 차원

음과 양이 대립되는 것처럼 소양과 소음은 상하로 대립되고 태양과 태음은 좌우 혹은 전후로 대립된다. 소와 태는 차원이 다르다. 태양인이 恒欲進而不欲退하고 소양인이 恒欲舉而不欲措하는¹⁰⁾ 것이 태소음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차원 내에서 태양은 태음화 하고 태음은 태양화 하고 있고 소양은 소음화 하고 소음은 소양화 하고 있다. 만물은 정제하지 않고 격동하기 때문에 태양의 모습을 잠시 보인다가 하면 태음의 모습을 잠시 보일 때가 있다. 소양과 소음도 마찬가지로 같은 차원에서 서로 반대의 상태를 잠시 보일 때가 있다. 체질을 감별할 때 태양인이 때로 태음인의 성질을 보일 때도 있고 그 반대일 때도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인체는 크게 네 개의 腔이 있다. 맨 위로 頭蓋腔에 해당하는 머리통 있고 그 다음으로 가슴통과 배통, 맨 아래로 骨盤腔인 방통이 있다. 위로 머리통과 가슴통은 양이고 아래로 배통과 방통은 음이다. 머리통과 배통은 정신작용과 연관이 있고 인간의 중심에 해당하는 상단전과 하단전이 있어서 같은 차원 내에 있다. 이들 중에 보다 위에 있는 머리통은 태양이고 아래에 있는 배통은 태음이 된다. 가슴통과 방통은 육체의 대표적인 운동기관인 팔과 다리가 붙어 있어 같은 차원에 속한다. 이들 중에 위에 있는 가슴통은 소양이고 방통은 소음이다.

3) 생명의 사상

인생이나 식물의 일생을 사상으로 나누어 보면 사상의 의미를 보다 이해하기 쉽다. 인간에게는 기능적인(작용적인) 면과 체질적인(형체적인) 면의 양면성이 있다. 기능적인 면으로 볼 때 1~20세 까지 청년기는 소양이고 21~40세 까지 장년기는 태양이고 41~60세 까지 중년기는 소음이고 61~80세 까지 노년기는 태음이다. 청년기는 쉽게 흥분하고 더위를 많이 타고 동작이 빠르고 龍頭蛇尾적인 행동을 한다. 소양의(=) 기능이다. 장년기는 양이 극하면 음이 생기는 법이라 덜 흥분하고 더위도 덜 타고 동작도 느려지기 시작하고 머리는 더 쓰기 시작한다. 힘은 더 세고 활동 폭은 더 넓다. 태양(=)의 기능이다. 중년기는 침착하고 신중하다. 동작은 청년기와 장년기 보다 느리고 결과를 중요시한다. 추위를 타기 시작한다. 소음(=)의 기능이다. 노년기는 더욱 침착하고 신중하나 음이 극하면 양이 생기는 법이라 아이들처럼 생각이 단순해질 때가 있고 실수를 잘한다. 또한, 추워하면서도 입이 마른다. 태음(=)의 기능이다.

형체적인 면으로 보면 청년기는 태양이라 머리가 몸에 비해 크고 장년기는 소양이라 어깨가 크고 배는 훔쪽하다. 중년기는 태음이라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노년기는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엉덩이가 커지고 다른 장기는 작아지나 가장 깊숙하게 있는 전립선이 커진다.

식물은 동물보다 음적이라 주로 형체적인 면에 치중한다. 식물(풀)이 봄에 땅 속에서 솟아오를 때는 그 형상이 태양인(=)의 直升하는 형상이다. 여름에

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것은 소양인(=)의 橫升하는 형상이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것은 태음인(=)의 放降하는 형상이다. 겨울에 무성하던 가지와 잎은 영양분 공급을 못 받아 죽고 큰 줄기로 기운이 내려와 뿌리만 살아있는 것은 소음인(=)의 陷降하는 형상이다. 이런 사상의 형상은 다음 <그림3.> 분수 그림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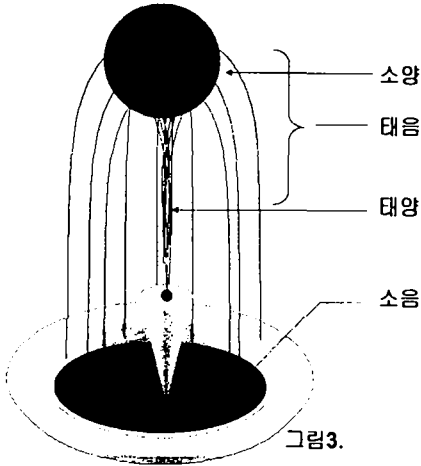


그림3.

분수가 처음 분출하는 형상은 태양,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소양, 퍼져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태음, 떨어진 물이 다시 분출되기 위해서 펌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소음의 형상이다.

4) 사상과 오행의 차이점

사상과 오행의 차이점을 알면 종래의 한의학과 사상의학의 차이점이 명확해진다. 사상과 오행의 차이점은 象과 行의 차이점이 있다. 象은 형(물질, 음)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行은 작용(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4는 음수로서 움직임이 없는 형체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고 5는 양수로서 활동적인 기능(작용)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단지 사상과 오행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상의학은 형체(체질)적 관점에서 인체를 다룬 의학이고 전통의학은 작용(기능)적 관점에서 인체를 다룬 의학임을 알 수 있다.

현대 병리학에서 질병의 원인을 素因과 誘因으로 분류한다. 소인은 유전자의 이상이고 유인은 병균의

침입, 중독, 상해, 과로,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다. 사상의학은 이미 형체가 이루어진 소인에 중점을 둔 의학이고 전통의학은 급변하는 유인에 중점을 둔 의학이다.

사상과 오행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사상이 음이라면 오행은 양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사상의학만 고집하고 유인은 소홀히 하거나 오행의학만 고집하고 소인은 소홀히 하는 것은 음양론에서 양만 옳다고 고집하거나 음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다.

오행은 사상에 음양이 조화된 토만 하나 더 들어간 것이다. 사상의학에서는 음양이 조화된 토가 음양의 불균형이 원인인 모든 체질적 질병들을 말할 때는 별로 가치가 없으니 토를 뺀 것이다.¹¹⁾ 사상의학에서는 오장의 中心인 心이 빠져 있다. 오행의학의 관점에서는 중심에 위치하는 비가 토에 속하나 사상의학의 관점에서는 피의 펌프기능이 아니라 뇌의 정신작용의 주체로서 나머지 4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심이 토에 속하며 음양이 조화된 태극도 된다.^{12), 13)} 인체를 정신과 육체로 나눌 때 정신은 양이 되고 육체는 음이 된다. 정신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뇌, 척수 계통의 중추신경계를 양중의 양인 태양인의 발달된 부분으로 보는 이제마 선생은 심이 아니라 뇌를 정신의 주체로서 인식한 것 같다. 태양인이라 天時를 전문하기 좋아하여 여행을 많이 한 이제마 선생이 그 당시 청나라에 도입된 서양 해부학을 모를 리 없다. 또, 동의수세보원이 출판된 때는 서양의 물질문명에 자극을 받아 우리 나라에 실학운동이 활발한 때이다. 배가 큰 태음인은 실제로 배속에 들어 있는 간이 큰 사람이지만 전통 오행의학에서 말하는 간 기능이 큰 사람이 아니다. 체질 감별법 중에 체형계측법이 옳은 이유가 이것이다.

오행은 사상으로 바로 대치될 수 있다.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다. 양 중에 소양의 기능은 화이고 태양의 기능은 목이다. 음 중에 소음의 기능은 수이고 태음의 기능은 금이다.¹⁴⁾

간경은 간의 기능과 관련된 경락이기 때문에 목기가 왕성한 태양인에게 간의 형체가 작다고 간경을 보해서는 안 된다. 금기가 왕성한 태음인에게 폐의 형체가 작다고 폐경을 보하는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사상의학은 변화가 빠르지 않은 형체의 대소

로서 질병의 소인을 판단하는 의학이기 때문에 변화가 적은 형태를 보고 체질을 감별해야지 변화가 빠르고 형태보다는 기능을 판단하기 유리한 맥을 보고 체질을 판단해서는 문제가 많다. 부분 속에 전체의 정보가 있으니 체질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맥을 보고 체질을 아는 것은 도둑이 서있을 때 잡지 않고 도망가게 한 다음 잡는 것과 같다.

음양이 수도 없이 분화 할 수 있는 것처럼 체질을 4가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체질 하나씩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전체적 연관 관계를 지을 수 없어 단순화시켜 전체적인 연관관계를 잘 알 수 있게 한 사상의학으로 가치가 없다.

5) 사상의학 이론의 현대의학 적용

a. 진단

H₂O가 대부분인 우리 몸은 수소원자가 대부분이다. 이 수소원자가 결합된 분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방출 양이 달라진다. 이 방출 양의 1 pixel당 차이를 scan하여 컴퓨터로 영상을 만들면 MRI 영상이 된다.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신호는 아주 다양한 신호가 나오는데 computer program에 의한 필터로 걸러 한의학 진단이 아닌 양의학의 진단에 필요한 정보만 쓴다. 지금의 MRI 시스템에 들어있는 computer program으로는 뇌종양이나 뇌전색 등의 병명만 알 수 있다.

종양이나 뇌전색 등이 MRI 영상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병이 이미 많이 진행돼 치료하기 어렵다. 이 병이 되기 전에 그 부분에 몇 년 혹은 몇 십년 동안 비정상적인 원자의 신호가 나오는데 양방 병명을 얻기 위하여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상용 MRI 시스템으로는 그 변화를 감지해낼 수 없다.

사상의학은 digital이론에 해당하는 음양론으로 만물을 분류하기 때문에 1 픽셀에 들어온 수소 원자들의 비정상적인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양방적 병명은 얻지 못하더라도, 음양 이론으로 된 팔강병증이나 체질은 알 수 있다.

b. 양약

양약도 그 성질에 따라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페니실린계통의 항생제는 맛이 쓰다. 쓴 약은 瀉火하기 때문에 소양인 약에 속하는 것이 많다. 사상의학 이론으로는 소음인은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이라도 소음인의 비기능을 해치면 효과가 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 박테리아에 의한 기관지염이 분명한데도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가 듣지 않고 오히려 설사만 하는 사람이 있다. 소음인들이다. 이럴 때 보통 양의사들은 그 균들이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화학요법적인 박트림으로 바꾸어 투여하면 효과가 난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사상의학으로 그 기전을 생각해보면 사상의학적 기전이 더욱 타당하다. 박트림은 유향 화합물이다. 유향은 소음에 이로운 약이라 유향의 살균작용이 비의 기능을 해치지 않을뿐더러 비의 기능도 좋아지며 기관지염이 치료된다.

말라리아의 특효약이고 맛이 써서 전에는 아기들 젖을 떼는데 유두에 발라 놓던 키니네는 소양인의 寒熱往來에 시호보다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의 어떤 의사는 실수로 간암 환자에게 키니네를 투여했는데 간암이 매우 호전됐다고 한다. 그 환자는 70대 노인인데 키니네 투여 전에는 미이라와 같았으나 그 이후로 아주 편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사망 원인도 간암이 전이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 텍사스의 많이 주기로 유명한 음식점에서 스테이크를 2 파운드나 먹는 호기를 부리다 그것이 악화되어 죽었다고 한다. 그 환자는 분명히 소양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음인 아이와 태음인 아이가 있을 때 오한발열하는 태양증 감기에 아스피린을 쓰면 태음인 아이는 땀을 흘리면서 그 감기가 그치는데 소음인 아이는 해열이 됐다가도 아스피린이 간의 해독작용에 의하여 무독화되는 4시간 후에는 열이 다시 온다. 아스피린은 본래 버드나무(Willow Tree) 종류의 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성분인데 버드나무는 잔 줄기가 길게 퍼져나가고 잎이 가늘고 예리하여 발산하는 태양의 형상을 하고 있다. 특히 껍질은 버들피리를 만들 정도로 물이 잘 오르고 사람의 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태음인의 습과 열을 발산할 수 있다.

3. 사상의 현대 과학적 해석

1) 라이프니츠의 2진법과 Digital Device(Computer)

우리의 두뇌에 의해서 인식되기 이전의 실제세계는 단계별로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어 있다. 연속된 실제세계는 아날로그 세계라 하고 두뇌의 인식작용으로-소리, 빛, 냄새, 맛, 촉감에 의해 자극이 디지털 신호로 전달된다. 단계별로 끊어서 인식된 세계는 디지털 세계라 한다.

음악가들은 소리를 듣고 음계 중에 도에 해당하는지 미에 해당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 그 소리를 악보에 옮겨 적어보면 그 소리는 음계별로 끊어져 있지만 사실 그 소리는 끊어져 있지 않고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

재래식 레코드판은 소리가 만드는 진동으로 플라스틱 판을 깎아 소리를 기록하고 전축의 바늘은 그 진동을 그대로 재생하여 소리를 낸다. 컴팩트 디스크는 소리의 진동을 <그림4.> 처럼 짧은 일정한 시간동안 끊어 그 마디마다의 평균 음을 기록한다. 컴팩트 디스크의 음은 두뇌가 인식하는 방식의 뚜렷한 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리의 구별이 명확하다. 레코드판의 음은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으나 실제의 음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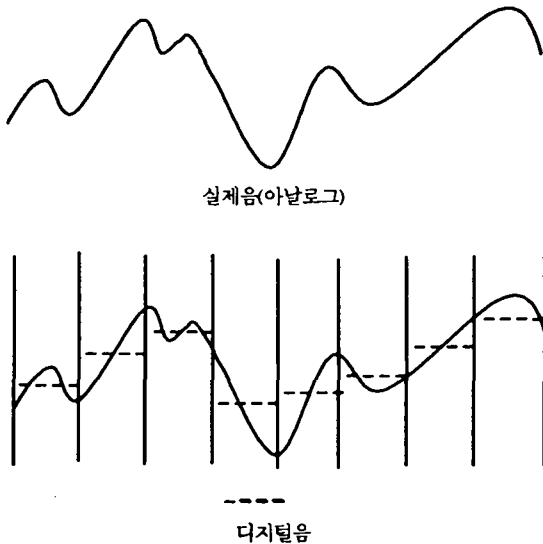


그림 4.

재래식 레코드판은 아날로그 장치라 하고 컴팩트 디스크는 디지털 장치라 한다. 디지털 장치를 운용하는데는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데 십진법을 쓰는 것 보다 2진법을 쓰는 것이 예, 아니오를 대신할 수 있어 그 숫자나 숫자의 집합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전에는 아날로그 세계의 디지털 계측에 10진법이 사용되었지만 라이프니츠가 1679년에 이진법을 창시하면서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장치의 발명을 가능케 하였다.

이진법을 쓰면 여러 단계에 위치해 있는 스위치가 ON하거나 OFF함으로써 여러 스위치의 조합의 한 가지 경우를 나타낼 수 있다. 이 한가지 경우는 어떤 사물이나 작용을 기계가 인식하거나 기록할 수 있어 컴퓨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두뇌의 작용을 컴퓨터가 할 수 있으니 정보산업의 혁명을 가져오게 되었다.

라이프니츠는 1679년에 이진법을 만들었지만 그 이진법이 이미 5 천년 전에 복희 시대에 만들어져서 역경에 등장하게된다. 태극이 음양으로 갈라지고 음양이 사상으로, 사상이 8괘로 갈라지는 것이 그것이다.

사상의학은 음양과 사상의 2진법을 사용하여 인체의 체질, 생리, 병리, 약리를 디지털 코드 화한 학문이니 초현대적인 컴퓨터 의학이다.

2) Fractal World와 사상

이제마 선생은 인간의 환경계를 사상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다. 천시, 사회, 인류, 지방이다.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사상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다. 사심, 신물이 그것이다. 그 속에 사는 인간의 종류를 넷으로 나누었다.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태음인, 소음인이다. 인간의 걸 前部(음)를 사상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다. 額, 臆, 臍, 腹이다. 인간의 걸 後部(양)를 사상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다. 頭, 肩, 腰, 臀이다. 인간의 상부(두)를 사상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다. 耳, 目, 口, 鼻이다. 인간의 속을 사상에 따라 넷으로 나누었다. 肺, 脾, 肝, 腎이다.

사상의학의 패턴을 해부학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인체는 전체적으로 머리통, 가슴통, 배통, 방통(골반강)으로 나뉜다. 가슴통에는 팔이, 방통에는 다리가 붙어있는데 팔은 어깨, 상완, 전완, 손, 네 마디로

나뉜다. 다리는 엉덩이 대퇴, 하퇴, 발, 네 마디로 나뉜다. 팔의 끝에는 손이 있는데 수장골, 근 중지골, 원 중지골, 말절골, 네 마디로 되어 있다. 다리의 끝에는 발이 있는데 족장골, 근 중지골, 원 중지골, 말절골, 네 마디로 되어 있다. 머리카락, 근육, 신경을 볼 것 같으면 한 가닥의 머리카락, 근육, 신경에는 가는 여러 개의 섬유다발로 되어 있고 한 개의 섬유다발 속에는 그보다 작은 여러 개의 섬유다발이 또 들어 있는 것을 반복한다

이렇게 부분 속의 형상 패턴이 전체의 형상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현대 수학에서 Fractal 기하학이라고 한다.¹⁵⁾ 프랑스 태생의 IBM 수학자인 Benoit Mandelbrot가 1960년에 발견하였다. 해안의 형태, 산줄기, 식물의 가지, 고사리의 잎, 브로콜리, 눈의 결정들의 가지가 뻗어 가는 패턴을 수학적 공식에 의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타냈다. 모든 물질, 특히 유기물질의 구조가 이런 패턴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패턴을 5천년 전에 제시한 모델이 주역의 태극, 음양, 사상, 8괘, 64괘의 패턴이고 이 패턴을 이용한 사상의학은 프랙탈 구조로 된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3) Hologram과 사상

홀로그램은 빛을(주로 laser) 비추었을 때 3차원 영상이 생기는 사진이다. 레이저 광선을 반투명 거울을 통과시키거나 반사시켜 빛을 둘로 나눈 다음 하나는 피사체에 비추어 특별한 필름을 감광시키고 또 하나는 피사체를 비추지 않고 필름을 감광시킨다. 이렇게 하면 두 레이저 광선이 간섭을 일으키면서 피사체 모양을 알 수 없는 음영이 필름에 나타난다. 이 필름을 허공에 대고 빛을 비추면 허공에 피사체의 3D 모양이 나타난다.¹⁶⁾

Hologram이 특별한 것은 이 필름을 둘로 잘라 하나를 비추어도 그 피사체의 영상이 생기고 넷으로 잘라 하나를 비추어도 그 피사체의 영상이 생긴다. 이것은 Hologram 이 부분 속에 전체를 담고 있는 사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Hologram은 전체라는 뜻의 holo와 사진이라는 gram의 합성어인데 이 이름에서 그 사진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뇌의 청각을 맡고 있는 부분이나 시각을 맡고 있는 부분

손상되어도 청각을 느낄 수 있고 시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뇌가 몸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홀로그래밍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⁷⁾ 세포 하나가 인체 전체의 정보를 DNA 속에 저장하는 방식도 Hologram과 같은 저장방식이 된다. 이것이 영국의 복제 양 Dolly와 같이 체세포 하나가 양 전체로 복제가 가능케 해주는 이유이다.

각 사상 속에는 음양이 들어있다. 음양의 균형은 맞지 않지만 전체에 해당하는 태극이 들어 있는 것이다. 사상 속에는 하나를 보고 전체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 사상 개개의 특징이다.

4) 양자 물리학과 사상의학

Newton 시대의 고전 물리학 관점으로 보면 음양 오행론에 기초한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나 현대의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한의학은 아주 과학적이다. 고전물리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는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으나 몇 억 광년이나 떨어진 별들의 현상과, 원자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생명의 현상들을 설명하는데는 맞지 않는다.¹⁸⁾ 양자물리학은 고전물리학이 설명할 수 없었던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이 개념들이 역경의 태극, 음양, 사상의 개념과 비슷하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가장 최소단위를 양자로 보는데 이 양자들은 빛, 전자, 핵의 기본요소로서 파동성과 입자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주가 거시적으로는 양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음에 해당하는 물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을 이루는 최소단위인 양자도 양에 해당하는 파동성과 음에 해당하는 입자성의 양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가 2로 분화하고 4로, 8, 16, 32, 64...로 분화하여 그 하나가 DNA에 인체 전체의 정보를 가진 수많은 세포가 되고 그 세포들이 모인 것이 인체가 된다. 마찬가지로 파동성과 입자성의 세력 편차에 의한 성질을 달리하는 양자들이 모인 것이 우주가 된다. 우주도 역경의 분화 방식대로 에너지와 물질의 구분이 없던 무극의 상태에서 시작되어 energy 와 물질의 분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태극이 됐다. Energy와 물질로 완전히 갈라져서 음양이 되고 energy의 물질화가 많이 일어난

쪽(소양) 과 덜 일어난 쪽(태양), 물질에서 energy화가 많이 일어난 쪽(소음), energy화가 덜 일어난 쪽(태음)의 사상으로 나뉘어 진다.

이렇게 분화를 거듭하여 수없이 많은 양자로 분화되고 그 양자들이 모여 우주가 된다. 그 양자는 역시 음양의 양면성(wave-particle dualism)으로서 인체의 세포들처럼 전체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양자 물리학의 기초를 이룬 사람 중에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는 역경의 음양, 사상론과 흡사한 이론을 많이 발표하고 증명하였다. 아인슈타인은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에서 물질은 소모되어 energy로 변할 수 있고 energy는 물질화 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E=mc^2$ 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었다¹⁹⁾.

이것은 음양이 相互轉化하는 법칙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는 음양의 체용법칙을 발견할 수도 있다. 겉의 작용이 활발한 것은 속의 에너지를 물질로서 저장이 그만큼 부실한 물질이고 겉의 작용이 침체된(에너지 소모가 적은) 것은 속의 물질로서 저장에 그만큼 충실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다.

사상의학에서는 태양인은 폐대간소이고, 태음인은 간대폐소라 하나 태양인은 간의 작용에 해당하는 목의 발생기능이 크고 태음인은 폐의 작용에 해당하는 금의 수렴작용이 활발하다.²⁰⁾

이 이유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중의 $E=mc^2$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어 그 작용으로 물질을 변화시키고 운동시킨다. 理氣論에서 기가 모이면 형이 되고 형이 흩어지면 기가 된다²¹⁾. 우주는 -氣로 되어 있는데 理를 따라 모이고 흩어짐에 따라 만물이 각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가 기의 움직임에 의하여 변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바닷물이 바람 부는 대로 각양각색의 파도를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바닷물이 -氣이고 바람이 理인데 이 理에 해당하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4력이다. 4력에는 거시의 세계에서 주로 작용하는 전자기력과 중력, 미시의 세계(원자의 세계)에서 주로 작용하는 強力 과 微力이 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전자기력은 태양에 속하고 구심력이 있는 중력은 태음에 속하고 중성자와 양성자를 결합시키는 강력은 소음인에 속하고 핵을

decay시키는 미력은 소양에 속한다. 우주에는 사상의 힘이 존재하고 이 사상의 힘의 균형이 깨져서 인체의 유전자에 미칠 때 사상체질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우주의 4력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場(field)라고 하는데 각 힘은 각기 다른 법칙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4력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인 통일장 이론(Unified Field Theory)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을 연구 중인데 결국 시간이 가면 주역의 이론이 통일장 이론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닐스 보어는 원자의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양자 물리학의 기초를 닦았다. 우주의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특정한 本性이 있다. 그 성질에 따라 가로와 세로로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을 모아 놓으면 주기율표가 된다. 이 원소들에 번호를 붙여 놓았는데 사람의 本性에 따라 번호를 붙여 놓은 分數(配分된 數)와 비슷하다. 사람이 분수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되듯이 이 원소들도 분수에 따라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어 자기의 위치와 형체가 정해지고 변화되면서 우주를 구성한다.

인간을 본성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듯이 원소들도 본성에 따라 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바깥쪽의 궤도를 도는 전자들 중에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의 숫자가 같은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이 있고 같은 세로 줄에 배열된다. 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에는 전자가 둘이 짝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 궤도에는 4개의 자리에 두개씩 짝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 궤도 부터는 일정한 규칙이 없고 혼란스러운데 역경의 분화법칙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보어의 원자 모델이 전자수가 작은 원소에는 잘 부합되나 큰 원소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난이 있다.

64괘는 상괘를 가로로 건-곤-감-리-손-감-간-곤의 순서대로 늘어놓고 하괘를 이 순서에 의해 세로로 늘어놓으면 마치 주기율표처럼 된다. 가로나 세로로 같은 줄에 있는 괘들은 상괘나 하괘가 같아서 공통적 성질이 있다. 이것은 주기율표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각에 있는 전자들이 짝을 이루지 못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 줄에 있으며 공통적 성질이 있는

것과 같다. 음양, 사상적 관점에서 원소의 주기율표만 제대로 만들면 인간 세포의 화학적 분석으로 체질을 감별할 수 있고 한약의 화학적 분석이 곧 약의 음양 분석이 된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음양, 사상론과 부합되고 과학에 대해 폭 넓게 알면 알수록 역경 책을 보고 깨닫는 것이 많다. 라이프니츠가 1703년에 쓴 "2진법의 해석"이라는 논문에 역의 64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²²⁾

당시의 중국에는 크리스티교의 선교사가 많았어 있었고, 프랑스인 Joachim Bouvet를 통해 易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역경은 그전부터 프랑스로 번역되었다. 상대성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나 역경의 체계로 된 원자모형을 발표한 보어도 역경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양성자와 음전자가 짝을 이루어 태극과 같고, 더 분화하여 전자각들의 전자 배열법칙이 4상, 8괘의 분화 법칙 비슷하게 생긴 원자 모형을 정립한 보어는 그의 귀족작위 의장으로 태극을 그려 넣었다.²³⁾

III. 結論

1. 주역의 '사상'은 우주, 인체, 윤리 등의 독립된 개체를 전체로 놓고 그 대표되는 특성의 차이에 따라 4가지 상으로 나뉘었다.
2. 주역의 사상은 현대과학의 상대성이론, 상보성이론, Digital이론, Fractal이론에 등에 해당된다.
3. 현대과학의 각분야인 물리, 화학, 생물, 의학은 각기 다른 분야로서 일관된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주역의 사상을 등장시킴으로서 현대과학의 각 분야들의 전체적인 상호 연관관계를 찾게 됨을 알 수 있다.
4. 사상의학은 인간의 체질, 생리, 병리, 약리 작용들을 주역의 사상이 갖고있는 4가지 특성에 따라서 4가지 group으로 구분하였다.
5. 사상의 각 특성을 알기 위해서 현대 물리, 화학, 생물, 의학의 새로운 사실들을 사상에 따라 group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현대과학을 사상의학에 도입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고 사상의학을 이

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參考文獻

- 1) 鄭燦, 訂正 易經來註圖解, 臺北 : 各大書局, 1974;417
- 2) 이제마, 격치고. 서울 : 태양사, 1985;287
- 3) 前掲書, 287-288
- 4) 한동석, 동의수세보원주석. 서울 : 성리회출판사, 1967;10
- 5) 이제마, 격치고. 전게서, 172
- 6) The World Book Encyclopedia. USA, 1988; 6 : 273
- 7) 李清菴, 中和集. 臺北 : 自由出版社, 民國 60;8
- 8) 이제마, 격치고. 전게서; 287
- 9) 허준, 동의보감. 서울 : 남산당, 1969;678
- 10) 한동석, 동의수세보원주석. 전게서;92
- 11) 이제마, 격치고. 전게서;172
- 12) 한동석, 동의수세보원주석. 서울 : 성리회출판사, 1967;60
- 13) 이제마, 격치고. 전게서;287-288
- 14)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 행림서원, 1985;76-77
- 15) Suplee, Cu., Physics in the 20th Century. New York : Harry N. Abrams Inc., 1999;162
- 16) Galan, Physical Forces. Alexandria, VA : Time-Life, 1992;124
- 17) Talbot, Mi., The Holographic Universe. New York, NY : HarperCollins, 1991;11-31
- 18) Microsoft Encarta Encyclopedia. Redman, WA : Microsoft, 1999; Quantum Physics
- 19) Clark, Matter and Ener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142
- 20) 한동석, 동의수세보원주석. 서울 : 성리출판사, 1976;13-14

- 21) 유명종, 조선후기 성리학. 서울 : 이문출판사, 1985;49-52
- 22) 야부우찌 기요시, 중국의 과학. 동경, 일본 : 조일신문사, 271-274
- 23) 카프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서울 : 범양사, 1975;177